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재조명*

유태주(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시작하는 말

근대 이후 세계사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서양제국들이 성경말씀을
불신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데서(요15:5) 세계적이며 오늘의
총체적인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관의 재정립과 함
께 구원의 신앙과 신학 확립이 세계적인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우선적인
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요한 칼빈의 성경관과 사도적인 구원
관을 17세기에 영국에서 재현한 청교도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살펴
보고, 동시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에서 교회와 사회의 개혁과 화
합을 시도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1세기 오늘의 신학과 신앙을 재정
립함으로 신학과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시금석으로 삼고자한다.

특히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제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이 시점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통한 WCC의 혼합주의

* 이 글은 '213년 한일장신대학교 종교개혁제'(2013년 10월 24일-25일, 한일장신대학교 봉사교육
관) 둘째 날(10월 25일) 발제한 특강 원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적 신학에 대한 조명과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I. 청교도운동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1. 청교도운동 개요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분리된 영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영적 능력을 공급 해주지 못했고, 영국에서 내려오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30-84)의 교회개혁 정신과 유럽대륙에서 일고 있는 루터, 즈빙글리,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의 물결은 뜻 있는 영국 성직자들과 성도들은 교회 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이것은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¹⁾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까지 한 세기 동안 영국에서는 교회개혁을 놓고 전통을 겪었고, 이 전통은 국가 정치적인 내용으로 파급되었으며, 결국은 미국 신대륙으로의 이주와 영국 혁명이라는 거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2.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성립 과정

영국은 제임스 1세(James I, 통치 1603-1625)와 그의 후계자 찰스 1세(Charles I, 통치 1625-49)의 청교도 탄압이 계속되었다. 결국 1642년에 왕정파와 의회파 군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 내의 두 단체들은 정치단체들을 지지하게 되었다. 강력한 군주정치를 바라는 이들과 영국교회 로마천주교파들은 서로 동맹을 맺었으며, 의회의 복구를 추구하던 이들과 청교도들은 또 다른 동맹을 이루게 되었다.²⁾

의회파와 청교도 측이 유리하게 정권을 잡은 동안 장기의회의 결의에 따

1) 원종천, 『청교도 연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7.
2) 앞의 책, 156.

라³⁾ 새로운 신앙고백을 위한 대회 위원들이 구성되었다. 여러 절차를 거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1647년 4월 29일에 의회에 보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소요리문답(The Shorter Catechism)이 완성되어서 의회에 보고된 것이 1647년 11월 5일 이었고, 대요리문답(The Larger Catechism)은 1648년 4월 14일에 보고되었다. 1648년 3월 22일에 상하 양원의 협의회가 개최되어, 신앙고백에 대한 견해들을 비교 검토하였다.⁴⁾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상황이 악화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 의회의 결정들이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었다. 1662년 8월 24일에는 찰스2세에 의해서 2,000명 이상의 장로교 목사들이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지지한 이유로 그들의 교회로부터 면직되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신앙적 정치적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그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도 함께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이라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미국의 처음 지방노회가 이 지방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한 것이 1729년이었다. 이 문서들은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아일랜드와 미국의 모든 장로교회들이 받아들였으며, 세계의 청교도계통의 회중교회들도 신앙고백을 높이 존경하며, 요리문답을 신자교육에 사용하고 있다.⁵⁾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회가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교회의 표준적인 신앙고백으로

3) “1643년 6월 12일에 국회는 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제목은 ‘영국교회의 치리와 예배형식을 결정하며 그 교리에서 거짓된 비평과 해석을 일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상하양원의 자문기관으로서 성직자들과 기타 인사들로 된 대회를 소집하는 법안’이었다. 감독들이 교회를 치리하던 제도가 없어졌어도 영국교회는 남아있었으므로, 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될 대회를 소집할 권위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의회뿐이었다. 법안에서 지명된 대회구성원들은 그 시대 교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A. A. 하지/김종흡 옮김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30.

4) 앞의 책, 30.

5) 앞의 책, 31.

삼고 있으며,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에 속한다. 즉 20여 년 동안의 청교도 통치는 분열로 실패하여, 왕정이 복고되지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다시 꽂피기 시작하여 오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신앙고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II.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 그 목표를 구원에 두고 있다. 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문서가 아니라,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시 부패한 교회와 정치 현실 속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한 산 믿음의 신학의 결정체이다.

1. 산 믿음의 교리적 기초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있어서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라 할 수 있다.

1) 성경의 권위

신구약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⁶⁾ 고 하면서 난 외 참조 성경 구절을⁷⁾ 통하여 하나님

6)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Edition Three, (London: the Company of Stationers, 1647), Chapter I, 2. 다음부터는 The Confession of Faith(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를 WCF로 표기하기로 한다.

7) “1646년 12월 3일에 완성된 신앙고백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국회는 그 각 부분에 성경구절을 난외에 방주(傍註)를 달라고 지시했다. 회의는 마침내 각 명제에 대한 성경구절을 완전히 첨부해서 1647년 4월 29일에 의회에 보고하였다.” A. A. 하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옮김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30.

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됨을 진술하고 있다.⁸⁾ 또한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⁹⁾고 진술함으로 성경의 무오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전술함으로¹⁰⁾, 성경이 산 믿음의 확고하고 유일한 원천임을 밝히고 있다.

2)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술한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단3:34,35; 시135:6; 행17:25,26,28; 롬38,39,40,41장)를 보존하시고(히1:3),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마10:29-31)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잠15:3; 시104:24; 145:17), 그의 무오한 예지(豫知)와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엡1:11; 시33:10,11).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친미케 하신다(사63:14; 엡3:10; 롬9:17; 창45:7; 시145:7).¹¹⁾

8) 빅16:29,31; 엡2:20; 계22:18,19; 딤후3:16.

9) WCF., I. 5.

10) WCF., I. 6.

11) WCF., V. 1.

2.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중보자 되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된 것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사42:1; 벤전1:19,20; 요3:16; 딤전2:5), 선지자(행3:22), 제사장(히5:5,6), 왕(시2:6; 뉴1:33), 자기 교회의 머리 요 구주(엡5:23), 만유의 후사(히1:2), 세상의 심판자가(행17:31)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요17:6; 시22:30; 사53:10),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딤전2:6; 시55:4,5; 고전1:30).¹²⁾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삼위(三位)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차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요1:1,14; 요일5:20; 빌2:6; 갈4:4).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히2:14,16,17; 4:15).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임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눅1:27,31,35; 갈4:4).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눅1:35; 골2:9; 롬9:5; 벤전3:18; 딤전3:16).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롬1:3,4; 딤전2:5).¹³⁾

12) WCF., VIII.1.

13) WCF., VIII.2. "The Son of God,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being very and eternal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즉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온 인류의 중보자이심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멀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요3:16)는 고백인 것이다.

3. 구원을 위한 신앙고백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신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주이심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됨을 얻음으로 구원도 또한 주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¹⁴⁾ 그런데 칼빈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고백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의 신학을 진술하고 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칭의와 동시에 성화임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진술하고 있다. 이는 칼빈의 견해와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산 믿음

God, of one substance and equal with the Father, did, when the fullness of time was come, take upon Him man's nature, with all the essential properties, and common infirmities thereof, yet without sin;¹⁷⁾ being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of her substance. So that two whole, perfect, and distinct natures, the Godhead and the manhood, were inseparably joined together in one person, without conversion, composition, or confusion. Which person is very God, and very man, yet one Christ, the only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14) "We do not doubt Jesus is our Christ, that is, Savior. But as we obtain through him forgiveness of sins and sanctification, so also salvation has been given, in order that we may at last be led into God's kingdom, which will be revealed on the last day."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t Basel in 1536, trans. F. L. Batt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2:2, 43.

음의 신학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개혁을 위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진면목은 이 신앙고백의 배경이 말해주듯 단순한 교리를 진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산 믿음의 신학적 교리를 산 믿음의 삶으로까지 연결시키는데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 이는 이 신앙고백의 당사자들인 청교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서의 '산 믿음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1) 가정생활 개혁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가정생활에서 산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the mutual help) 제정되었다(창2:18).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씨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말2:15), 부정(不貞)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고전7:2,9).¹⁵⁾ 가정은 우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돋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인류에 봉사하도록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2) 교회 개혁

교회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는, 먼저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갖는다(요일1:3; 엡3:16-19; 요1:16; 엡2:5,6; 빌3:10; 롬6:5,6; 딤후2:12).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제한다(엡4:15,16; 고전12:7; 3:21-23;골2:19).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 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살전5:11,14; 롬1:11,12,14; 요일3:16-18; 갈6:10).¹⁶⁾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 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히10:24,25; 행2:42,26; 사2:3; 고전11:20). 이와 같은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행2:44,45; 요일3:17; 고후8:9; 행11:29,30).¹⁷⁾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두 가지 잘못되기 쉬운 점을 신앙고백은 경계하고 있다. 먼저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라 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 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 된다(골1:18,19; 고전8:6; 사42:8; 딤전6:15,16; 시45:7; 히1:8,9).¹⁸⁾ 이러한 경계는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 인류 역사 속에 침투한 교만하고 교활한 인본주의사조의 교회침투를 막는 고백으로서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제로 인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출20:15; 엡4:28; 행5:4)"고 고백함으로, 성경적인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자본주의(Capitalism)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몇몇 부자의 독선으로 가도 안 되겠지만, 공산주의(Communism) 이데올로기에 넘어가 기업(heritage)을 상실함으로 모두 거지

16) WCF., XXVI. 1.

17) WCF., XXVI. 2.

18) WCF., XXVI. 3.

15) WCF., XXIV. 1.

가 되는 불행을 막아주는 혜안을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 제시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본다.

3) 국가와 교회 개혁

국가위정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에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잠 8:15,16; 롬13:1,2,4).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2:10-12; 딤전2:2; 시82:3,4; 삼하23:3; 베전2:13).¹⁹⁾

그러나 국가위정자로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온 세상의 최고의 주(主)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롬13:1-4, 베전2:13,14)라는 사실이다.²⁰⁾

또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정교의 분리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즉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²¹⁾ 그러나 국가 위정자는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럴 때에 참된 교회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사49:23).²²⁾ 동시에 정부의 책임자들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 신자나 불신자가 구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집회와 교회집회를 아무 방해나 소란

19) WCF., XXIII. 2.

20) WCF., XXIII. 1.

21) WCF., XXIII. 3.

22) WCF., XXIII. 3.

이 없이 개최하도록 적당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삼하23:3; 딤전2:1-2; 롬 13:4).²³⁾

국민과 교회 그리고 종교단체가 국가공직자를 위한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신중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딤전2:1,2)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벧전2:17),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바치고(롬13:6,7)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롬13:5; 딤3:1).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벧전2:13,14,16).”²⁴⁾ 이 때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롬13:1; 왕상 2:35; 행25:9-11; 베후2:1,10,11; 유8-11).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살후2:4; 계13:15-17).”²⁵⁾

I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한국과 세계교회 개혁운동에 적용

1.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재확립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산 믿음의 신학운동으로

오늘의 세계는 총체적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여 있다. 그 위기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신학의 위기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

23) WCF., XXIII. 3.

24) WCF., XXIII. 4.

25) WCF., XXIII. 4.

는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8세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떠난 이른바 계몽주의 운동에 영향 받은 신학이 서양의 기독교 국가를 세계적 위기의 원흉으로 만든 것이다. 19세기에 그들은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온 세계를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데서 나오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17세기에 사도적인 신학을 따라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한국 장로교회는 선교초기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성경과 함께 받아들였다. 이 신앙고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 신앙고백으로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여온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다양한 신학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왜곡시키는 신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순진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상실한 것은 물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도 못 하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개혁은 신학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의 권위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한 원인제공자가 서양에서의 칸트를 비롯한 인본주의적 신학자이었음과 같이 한국에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에 그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 개혁을 서두를 때이다.

우리가 신학개혁운동의 모토로 삼아야 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됨을

진술하고 있다.²⁶⁾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딤후 3:16)에서 영감의 정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나, 하나님의 영감의 성격상 그 범위에 있어서 부분영감보다는 완전영감으로, 그 방법은 기계적 영감보다는 유기적 영감을 취하는 것이 성경말씀에 합치하다고 본다.²⁷⁾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 심프슨(Sydrach Simpson; 1600-1655)을 비롯한 청교도 학자들이 칼빈의 개혁신학의 영향을 받아 그 열매로 결산한 것이기에 칼빈의 성경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그런데 칼빈은 철저하게 성경의 무오성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기록을 통하여 알고 있다. 즉 칼빈은 “성경을 확증하려는 인간적인 증거는—결코 무익하지 않다.”²⁹⁾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서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이성의 세계를 진술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성경말씀에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말씀에 대한 신뢰는 초대교회에서 루터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재확인되었고, 17세기 프란시스 투레틴에 이르기까지는³⁰⁾ 변함없이 지켜져 왔다.

26) WCF., I. 2.

27) 루이스 벌코프, 『벌코프 조직신학개론』, 박희석 옮김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37-41.

28) William Perkins, *A Golden Chain: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ie: Containing the order of the cause of salvation and damnation, according to God's word. A view whereof is to be seene in the Table annexed. Hereunto is adioyned the order which M.Theodore Beza used in comforting afflicted consciences* (London: Printed by Iohn Legatt, 1623), “To the Christian Reader,” 9.

2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I. xiii. 13.

30) 1648년 Geneva Academy(Universite de Geneve)의 교수가 된 Francis Turretin(1623-1687)이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신뢰한 마지막, 사도 이후 칼빈주의에 이르기까지 밖이 끊이지 않고 신앙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 그의 아들 Jean Alphonse Turretin이 1697년 투레틴 사후 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1705년 아버지까지 이어온 성경관을 중단시키고, 계몽주의 합리주의 내용 따룬다. “Turretin is especially known as a zealous opponent of the theology of Saumur (embodied by Moise Amyraut and called Amyraldianism), as an earnest defender of the Calvinistic orthodoxy represented by the Synod of Dort, and as one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연구를 맡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성경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임을 확신하는 신학운동을 펼 때, 성도들도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적 유일성 고백을 통하여 혼합주의 사조 배격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중보자 되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된 것이며,³¹⁾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선언한다.³²⁾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롬1:3,4; 딤전2:5)”³³⁾라고 고백한 것이다.

그러나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과 생명의 보존, 정의, 평화라는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중보자 유일성을 거부하고 혼합주의양상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WCC 제6차 총회에서 “우리는 다른 신앙들(종교들)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종교적 진리의 추구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있음을 인정한다.”³⁴⁾고

of the authors of the Helvetic Consensus, which defended the formulation of double predestination from the Synod of Dort and the verbal inspiration of the Bible. Among his writings, which are chiefly dogmatic in character, special mention should be made of his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3 parts, Geneva, 1679-1685), which is dogmatic theology written in a polemic or argumentative fashion and which became a standard text in Reformed Christian circles. At Princeton Seminary it was only replaced as a textbook by Charles Hodge's *Systematic Theology* in the late 19th century."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Jump to: navigation, search/2009.5.28.

31) WCF., VIII. 1.

32) WCF., VIII. 2.

33) WCF., VIII. 2.

34) 조영엽, 『교회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타종교들과의 연합운동”, 484.

선언하여 종교다원주의적 구원관을 표방하였다.

1990년 1월 15일 개신교회, 정교회, 로마천주교회 대표가 1주간의 논의 끝에 채택한 바르선언문(The Barr Statement)은 다원주의 구원론을 천명하고 있다. 바르선언문은 “종교 간의 대화: 신학적 관점”(Interreligious Dialogue: A Theological Perspective)이라는 항목에서 다음 결론에 도달 한다: “우리가 다른 종교전통을 가진 남녀 종교인들 속에서 구원의 신비(the mystery of salvation)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간의 대화에서 그들에게 접근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자세를 정해준다.”³⁵⁾ 이와 같이 바르선언문에서 WCC는 그리스도중심의 구원론을 견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있다.³⁶⁾

이 선언문의 “기독론과 종교적 다원성”(Christology And Religious Plurality)에 관한 선언에서도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조차도 보편화한다.

예수의 말과 행위에서, 그분의 설교에서, 그분의 치유와 봉사 사역에서 하나님은 지상에 자신의 통치를, 즉 주권적인 지배를 세우고 계셨는데, 그분의 임재와 능력은 어떤 하나님의 사회나 문화에 제한될 수 없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집 밖에 있는 자들에게 가셨을 때 예수의 자세들은 이러한 우주적 통치를 증거 한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천명하셨다.(요4:7-24)... 하지만 지상 사역 동안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통치의 구원 능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 즉 부활절의 신비 그 자체를 통해 이러한 제한들은 극복되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위해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 의 구원하시는 신비의 우주적 차원이다. 이런 구원하는 신비는 하나님의 계획

35) Baar Statement: Theological Perspectives on Plurality,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interreligious-dialogue-and-cooperation/christian-identity-in-pluralistic-societies/baar-statement-theological-perspectives-on-plurality.html>

36) 김성수, “WCC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입장에 대한 고찰”, 2012; 4.

이 그것의 완성을 향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재되고 표현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데,(요10:16) 그들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감동시키는 종교적 전통들의 구조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난다.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에게는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딤전2:4).³⁷⁾

이렇게 바르선언문은 기독교의 배타적 구원 교리의 전거인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조차도 과감하게 보편화한다. 바르선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즉 보편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바르선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왜곡시킨다.³⁸⁾

37) In Jesus's words and action, in His proclamation, in His ministry of healing and service, God was establishing His reign on earth, a sovereign rule whose presence and power cannot be limited to any one community or culture. The attitudes of Jesus as He reached out to those beyond the house of Israel testify to this universal reign. He spoke with the woman of Samaria, affirming all who would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 (Jn. 4,7-24).../ But while it appears that the saving power of the reign of God made present in Jesus during His earthly ministry was in some sense limited (cf. Matt. 10,23), through the event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e paschal mystery itself, these limits were transcended.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disclose for us the universal dimension of the saving mystery of God./This saving mystery is mediated and expressed in many and various ways as God's plan unfolds toward its fulfillment. It may be available to those outside the fold of Christ (Jn. 10,16) in ways we cannot understand, as they live faithful and truthful lives in their concrete circumstances and in the framework of the religious traditions which guide and inspire them. The Christ event is for us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e salvific will of God in all human history. (I Tim. 2,4)"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interreligious-dialogue-and-cooperation/christian-identity-in-pluralistic-societies/baar-statement-theological-perspectives-on-plurality.html>:

38) 황대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종교다원주의:1990년의 바르 선언문(Baar Statement)을 중심으로”, 2013, 10,20, 16:44. 코람데오닷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요한도“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고 공회 앞에서 선언하였다. 성경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WCC의 바르선언문이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재외한 모든 일반 종교철학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도달하려는 인본주의(창3:5)를 중심원리로 삼고 있다. 창조주시며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본주의 사상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후에도 계속된다. 노아홍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극악무도한 사상인 인본주의는 살아남는다. 그 후 모든 세속 종교철학의 중심사상이 된다. 힌두교는 선행을 하여 아트만(인간 개인)이 브라만(우주의 신)이 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는 인본주의 종교철학이다. 불교는 힌두교의 4성 계급을 탈피하려는 개혁사상이기는 하나, 힌두교의 인본주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 인간이 8정도의 삶을 통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범신론적 인본주의 종교철학이다. 유교 역시 사람이 인을 개발하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여 천(天;극존 무대한 자)에 이르고자 하는 인본주의 종교철학이다. 모든 세속 종교철학들은 인본주의를 중심원리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WCC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유일성을 거부하고 이를 보편화하면서, 일반종교철학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한 복음을 배반한 인본주의와 같은 비성서적인 사상인 것이다.

또한 WCC의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위원회에 로마천주교회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³⁹⁾ 그러나 로마교회는 이미 1960년대 초 제2

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고 그리스도교 이외의 타종교들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였으며 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⁴⁰⁾ 로마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1965년에 「비 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여 포용주의적인 종교다원주의를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하였다. 이후 로마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교회를 로마교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정책을 편과 동시에, 타종교와의 교류를 통하여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 종교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WCC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태도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路1:3,4; 둔전2:5)”⁴¹⁾는 선언은 정면 대립한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교리적 헌법으로 삼는 한국과 세계의 장로교회는 WCC의 혼합주의적 태도에 대하여 바른 신앙고백으로 돌아킬 것과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총회를 계기로 성경으로 돌아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고 선언하기를 정중하게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운동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의롭다함 받고 거룩함을 입어 구원에 이른다는 사도적인 산 믿음의 신학을 강조한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고백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역시, 믿음을

39) 조영엽, 『교회론』, 470.

40)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정리된 그 신학의 핵심은, 구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다른 종교나 문화를 수용하려는 보편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진열, 『21세기 현대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79.

41) WCF., VIII, 2.

통한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현실은 구원이 중심이 되는 신앙과 신학을 떠나서 파편적인 교리수호에 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교파의 신학에 따라서 교파중심적인 신앙조항을 강조하다보니, 한편은 지식 중심의 믿음을 구원의 원리로 강조하기도하고, 다른 한편은 행함의 신앙조항에 중심을 두다보니 로마교회처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 같은 좌각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산 믿음”的 신학과 신앙을 일으키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한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칼빈과 함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의 열매로서 칭의와 성화가 있는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의 소유자임을 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어야함을 밀하고 있는 바울과 야고보를 통한 성경말씀과 일치한다.⁴²⁾ 성경은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추구하여야 할 신앙개혁운동이 바로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운동이 아니겠는가?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운동을 할 때, 성도 자신들도 구원에 이르거나와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자연히 하게 될 것이다.

4.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개혁운동으로

칼빈의 개혁신학이 제네바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타났듯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진면목은 이 신앙고백의 배경이 말해주듯 단순한 교리를 전술

42) *Institutes*. III, xvii. 11.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학적 교리를 산 믿음의 삶으로까지 연결시키는데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

1) 가정과 사회윤리 확립으로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에 국민 25%의 복음화를 이루었으나, 아직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와 문화 창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윤리는 유교적 가족 중심적 윤리가 수백 년 동안 뿌리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심 사상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입각한 부모님께 효도와 남녀유별의 윤리이다. 그러나 바른 선관과 인간관과 구원관이 확립되지 않은 유교의 가족중심의 윤리는 오래 갈 수가 없었고, 서양의 남녀평등의 사상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부모효도의 건전한 윤리마저 무너져버린 것이 오늘의 한국가정과 사회윤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보니 남녀유별 가족의 틀에 속박되었던 부부의 관계가 것 잡을 수 없이 파괴되면서, 이혼율이 서양의 계몽주의 이후 자유분방한 퇴폐문화에 영향 받은 나라 못지않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너진 가정과 사회윤리관의 확립과 개혁을 위하여, 성경말씀에 기초한 청교도적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엡6:1-3), 주님이 짹 지워 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라(엡5:22-33)는, 선관과 인간관과 구원관이 확립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윤리를⁴³⁾ 한국가정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신조의 가정윤리는 주일성수의 청교도적 실천신앙과 함께 건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안정된 가정윤리 확립에 기초가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성매매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절시키는 개혁이 우리 사회에 요청된다. 수백만의 짧은 여성들이 사

실상 성적노예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성적노예문제를, 18세기에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영국 캠브리지대학 출신으로,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성공한 윌리엄 월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월버포스는 노예매매를 근절시키는 데 일생을 헌신하여, 마침내 의회에서 20년만에 노예무역폐지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승리하고 영국을 수치스러운 노예매매국의 명단에서 구출하였다.⁴⁴⁾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청교도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다.

2) 교회와 사회 개혁운동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외적 성장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아시아와 온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의 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의 첫째 질병은 교회사역자들의 교권에 대한 병적인 추구현상이다. 그리고 둘째 질병은, 이미 개혁자들이 경계한 것을 무시하고, 로마교회라는 거대한 유사교회의 침투를 막는데 자진하여 방어체계를 해체시키는 무감각의 병에 걸린 것이다. 셋째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간의 사랑이 온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그 사랑의 기운이 거의 매말라 가고 있는 것이다.⁴⁵⁾ 성도간의

44) "His Evangelical conversion did not withdraw him from Parliament or from popularity. Early in 1785 he read Philip Doddridge's *Rise and Progress of Religion in the Soul* and through that book recovered his boyhood's intellectual acceptance of the Bible's teachings. Later that year, during continental travels, he read the New Testament in Greek. He returned to England profoundly convinced of his sinfulness, but by Easter 1786 this despair had been replaced by a joyful acceptance of Christ. John Newton comforted and guided him in his emotional crisis and had the sense to see how badly he was needed in public life. The moral standard of the Commons fell below its standard of eloquence." David L. Edwards, *Christian England* (Vol. 3); *From the reformation to the 8th century* (London: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83), 85.

45) 한국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정신적 윤리적 습관을 동시에 정비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유교적인 기문과 가족중심의 친교가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어왔기에, 가족을 뛰어넘은 교회공동체의 성도간의 초대교회적인 경건하

43) WCF., XXIV. 1-2.

사랑의 교제가 메마른 증거가 수도 해아리기 힘든 교파분열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가 국가와 사회에도 그대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국가와 사회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치계는 극도의 권력투쟁으로 치닫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르며, 당파와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남북통일을 서둘러야 할 나라와 민족이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첫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섬기는 지도자상을 가진 청교도들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이 신앙고백을 한국장로교회 현법의 기초로 삼는 한국교회가 섬기는 지도자상을 재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교도지도자 크롬웰은 그를 영국의회가 왕으로까지 추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만족하고 겸허하게 사양하였다.⁴⁶⁾ 우리 한국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지도적 봉사자들이 노회와 총회의 섬기는 직책을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며 섬기는 자세로 전환하여야 할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퍼킨스와 같은 청교도들이 로마교회를 참된 교회로 보지 않고 큰 음녀로 규정하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따라,⁴⁷⁾ 권력욕에 물든 교회조직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개혁과 로마교회의 그릇된 구원관과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한국교회가 폭넓게 교파간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되 진리수호의 차원에서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46) 면서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47) Ed. H. C. G. Matthew and Brian Harrison,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year 2000*, Vol. 14 'C-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332-333.

48) William Perkins, *A Reformed Catholike, or A Declaration Shewing How Neere We May Come to the Present Church of Rome in Sunday* (London: Printed by John Legatt, 1626), 556.

셋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형성과정에서부터 교회의 연합적인 공동전선을 펼쳤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청교도들이 공격적인 개혁에만 치우치지 않고 평소 천국의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의 공동체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형성의 증거로서, 잉글랜드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장로교회와 웨일즈장로교회와 아일랜드장로교회간의 사랑의 연합운동이다.⁴⁹⁾ 우리 한국민족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천부적으로 가족과 동족을 사랑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보다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이 배어있는 민족이다. 여기에 성령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청교도를 능가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회개혁운동은 교회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게 하는 저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맺음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역사는 한국과 세계의 모든 개혁교회가 교리적 현법으로 삼고 있음을 증거 한다. 이 신앙고백은 성경말씀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중보자성과 산 믿음의 구원관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회를 섬기는 신학자와 목회자과 성도들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생명과 삶으로 실천한 청교도들의 산 믿음의 신학을 본받아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소유하며, 구원 얻은 증거로 가정과 사회윤리를 확립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사회와 국가의 부정과 부패를 정화시키는 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 후대 역사가들은 한국장로교회를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기록할

49) S. W. Carruthers, *Three Centuries of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University of New Brunswick, Fredericton N.B, 1957), 3.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특히 WCC 제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0일(수)부터 11월 8일(금)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성경 말씀 안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교리적 헌법의 기초로 삼고 있는 한국장로교회는 이번 기회에 WCC가 그동안의 혼합주의적 과정에서 벗어나 새롭게 복음의 터 위에 바로 설 것을 기도하며 촉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WCC에 참가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모든 대표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고백하고 인본주의적인 혼합주의에서 떠날 때,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실 것'이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요15:5).

SOLI DEO GLORIA!

참고문헌

- 김성수. "WCC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입장에 대한 고찰". 2012.
- 원종천. 『정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유진열. 『21세기 현대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황대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종교다원주의: 1990년의 바로 선언문(Baar Statement)을 중심으로". 2013, 10, 20, 16:44. 코람데오닷컴.
- 하지, A. A.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옮김.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 Adams, Daniel J. *Lectures on Reformed Theology*. Seoul: Hyung Sang Books, 199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asel, 1536. Trans. F. L. Batt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Carruthers, S. W. *Three Centuries of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Fredericton N.B.: University of New Brunswick, 1957.
- Edwards, David L. *Christian England 3: From the Reformation to the 8th Century*. London: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83.
- Matthew, H. C. G. and Harrison, Brian, Ed.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Year 2000* Vol. 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Perkins, William. *A Reformed Catholike, or A Declaration Shewing How Neere We May Come to the Present Church of Rome in Sunday*. London: Printed by John Legatt, 1626.
- Perkins, William. *A Golden Chain: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ue*. London: Printed by John Legatt, 1623.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3rd Ed. London: the Company of Stationers, 1647.
-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Glasgow: Free Presbyterian Publications, 1995.
-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interreligious-dialogue-and-cooperation/christian-identity-in-pluralistic-societies/baar-statement-theological-perspectives-on-plurality.html>